

91살 어머니·화가 아들 그림, 마음의 '휴식' 주네

고흥 남포미술관, 김두업 여사·이현영 작가 '휴식' 전
 '화가 아들' 칭찬에 85세 때 그림 시작... 열정 불태워
 2016년 광양서 첫 모자전 이어 세번째 대규모 전시



고흥 남포미술관에서 '휴식' 전을 열고 있는 '화가 아들' 이현영 작가와 91세 어머니 김두업 여사가 이 작가의 작품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요즘 고흥 남포미술관을 방문하는 이들은 전시작들을 보고 빙그레 미소를 짓는다. '91세 할머니가 그린 소박한 그림들'이 마음에 와 닿아서다. 오래된 폐교를 리노베이션 한 편안한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휴식' 전(9월2일까지)은 어머니의 꿈을 응원하는 '화가 아들'과 91세 어머니가 함께 열고 있는 모자전(母子展)이다. 주인공은 광양에서 활동하는 서양화가 이현영 작가와 어머니 김두업 여사.

할머니 그림 앞에 서면 마음이 따뜻해진다. 미국의 '국민 화가'로 알려진 모리스 할머니(1860~1961)도 떠오른다. 76세 때 시작해 101세까지 그림을 그린 그 할머니 말이다. 김 할머니는 매화 등 꽃과 나무, 마을 모습, 해수욕장 풍경 등 '동화같은' 그림 50여점을 선보이고 있다.

아크릴 작업을 하는 할머니의 그림은 화려한 색감과 자유로운 색 배합이 눈에 띈다. '프로작가'들이라면 이것 저것 따지느라 쉽게 쓸 수 없는 구성이라 오히려 신선하고 재미있다.

할머니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건 6년 여전이다. 서울 흥대 앞에서 미술학원을 운영하던 이 작가는 어느 날 보성 어머니 집에서 달력 뒷장에 연필로 그린 '사과 그림'을 보게 됐다. TV에서 그림 그리는 할머니를 본 어머니가 한번 그려 보게 되었다.

세세히 그려진 기왓장을 보며 '어머니 관찰력과 눈썰미가 대단하다'고 생각한 그는 '어머니 참 잘 그리시네요' 이야기했다. '화가 아들' 칭찬을 들은 할머니는 스케치 북을 구입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얼마 후 색연필로 사다 드렸는데 색깔을 쓰는 게 남달랐다. 할머니는 집 거실과 주방 탁자에서 시간 날 때마다 붓을 잡는다.

두 사람은 지난 2016년 광양에서 첫 모



김두업 작 '내 마음의 풍경'

자전을 열었다. 이번 전시가 3번째로 가장 규모가 크다. 이 작가는 "어머니 그림에 얼마만큼 도움을 주느냐"는 질문을 받은 것이다.

"물감을 사드리고 맞춤형 캔버스를 짜드려요. 어머니 그림에 대해선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요. 흰색 배경 밑고 바탕색을 칠하고 그림을 그려 보세요" 이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다채로운 색깔로 작업을 하세요. 물감도 아끼지 않고 사용하시죠. 어머니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게 85세 때였죠. 색깔이 너무 좋고, 소재도 재미있는 어머니 그림을 여러 사람이 함께 봤으면 좋겠다 늘 생각했는데 전시회를 열게 되니 참 좋습니다. 어머니가 세탁소를 운영하셨는데 손재주가 좋으셔서 짜기기를 아주 잘 하셨어요. 제가 그 피를 이어받았는지도 모르겠네요. (웃음)"

이 작가는 남포미술관이 소록도 주민들과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강사로 참여 중이다. 전시회장을 방문한 소록도 주민들은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고 예술이 생활과 밀접한 것임을 느끼게 됐다.

이 작가의 작품도 흥미롭다. 수많은 점들로 이루어진 그의 그림은 지난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작업들이다. 또 물감을 직접 캔버스에 짜서 작업하는 등 재료와 기법에 대한 실험을 다양하게 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오드리 햅번', 강아지 등 점으로 이뤄진 작품을 만날 수 있으며 신작 '있을 것 같은 풍경' 시리즈를 전시 중이다. 추계예술대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이 작가는 두차례 개인전을 열었으며 다양한 그룹전에 참여했다.

개관시간 오전 10시~오후 5시(매주 월요일 휴관) 문의 061-832-0003.

/고흥=김미은 기자 mekim@

광주여성재단 여성인재 아카데미 지역거점 교육기관 6년 연속 선정

광주여성재단은 '2018년 여성인재 아카데미' 지역거점 교육기관으로 6년 연속 선정됐다.

이 사업은 광주여성재단을 포함해 전국 6개 기관(광주·부산·경북·강원·전북·전남)이 운영한다.

여성인재아카데미는 여성가족부, 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 지역거점기관이 함께하는 여성중간관리자 양성사업이다.

이 사업은 민간기업, 공공기관, 전문직, 여성 중간관리자가 조직 내 핵심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해당 기관은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 마감된다.

교육의 주요내용은 여성 중간관리자의 역할과 리더십 역량진단, 관리자 필수 커뮤니케이션 역량강화, 모의사례실습, 조직관리 및 여성리더십에 대한 이해, 갈등관리 등이다.

교육은 무료로 진행된다. 수료 후에는 여성인재아카데미 수료증 발급과 여성인재DB등록이 가능하며 지속적으로 사업관련 정보 제공 등이 이뤄진다. 문의 062-670-0531.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당신에게 집은 무엇입니까

갤러리 리채 청년 작가전...8월 6일까지 최나라레전



김지

갤러리 리채(관장 오병현)가 올해도 청년 작가전을 개최한다. 갤러리 리채는 지난 2016년부터 매년 4명의 광주전남 청년 작가를 선발해 개인전과 창작지원금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공모를 거쳐 김은지(8월10일~27일·설치), 정마음(9월1일~17일·서양화), 김미지(28일~10월15일·서양화) 등 4명의 작가를 선정했다.

올 초대전의 출발은 한국화가 최나라 작가 개인전이다. 오는 8월6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의 주제는 '생·날 생'이다.

최 작가는 주변의 흔하고 사소한 사물들, 그리고 풍경에 관심을 갖고 작업 중이다. 그 중에서도 삶과 '집'을 연결한 작업이 눈에 띈다. 집은 단순한 거주지와 보금자리를 넘어 개개인의 삶의 모습이 담긴

공간이라고 여기는 작가는 '자신만의 집'을 만들기 시작했다. 작품 속 집은 흔들리고, 그 속에 담긴 물건들은 정적하지 못한 채 날아다닌다.

이런 모습이 때론 불안해 보일수도 있지만 기쁨, 슬픔, 두려움 등 인간의 희로애락이 그대로 담긴 집의 모습을 통해 또 다른 생각거리를 던져준다.

작가는 한국화의 특징을 살려 다채로운 색채를 두텁게 쌓아올리며 색의 향연을 선사한다.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한국화전공 졸업 및 동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친 최 작가는 예맥회, 선목회 등에서 활동했으며 광주주미술대전 최우수상 등을 수상했다.

문의 062-412-0005.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평화통일 기원' 두드리·아리솔 유럽 순회공연

전통타악연구회 두드리(대표 이시영·이하 두드리·사진)와 풍물천지 아리솔이 '평화통일 기원' 유럽 순회 공연에 나선다.

두드리는 8월1일부터 10일까지 독일과 스위스, 프랑스에서 전통공연 선보이며 '한라에서 백두까지 평화의 소리, 사물놀이(Samulnori)'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공연은 신명나고 흥겨운 웃다리농악 등 전통문화예술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우리나라의 오랜 염원인 평화 통일을 기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공연은 8월 3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자일거리와 대성당을 시작으로 5일 스위스 베른의 시계탑·대성당·연방의사당, 8일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퐁피두·노트르



담·예림당 등에서 열린다.

이시영 두드리 대표는 "이번 공연은 어린이와 어른들이 함께하는 공연으로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예술 공연을 해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기원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국악 공연을 통해 우리 문화를 알리고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전은재 기자 ej6621@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계절의 보양식 **삼계탕**
 시원한 여름 별미 **물회**
 담백한 별미 **민어회**

※ 7월말 · 8월초 정상 영업합니다

정겨운 만남은 품격있는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

www.geumssoojang.com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